

어려움(고생)은 서로 돕기의 기회

신체에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중증의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울면서 탄식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떠받치며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 딸은 우리 집의 태양이다」라고 유머를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장애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천리교에서는 「보는 것도 인연, 듣는 것도 인연」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남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크건 작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갑작스레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그냥 힘든 일이 생겼구나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즐거운 삶으로 다가가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고생)은 서로 돕기의 기회

신체에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중증의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울면서 탄식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떠받치며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 딸은 우리 집의 태양이다」라고 유머를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장애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천리교에서는 「보는 것도 인연, 듣는 것도 인연」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남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크건 작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갑작스레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그냥 힘든 일이 생겼구나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즐거운 삶으로 다가가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